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은 2월 23일(목)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세미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시장 현황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산업육성 정책과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전기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최웅철 교수(국민대 자동차공학과)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라는 주제로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기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폐배터리 산업, 시장전망과 전략 과제」,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충전인프라 시장 현황 및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마지막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이 「전기차 투자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정책과제」 로 발제와 토론을 구성하였다.

김태년 위원장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 역시 전도유망한, 우리가 키워야 할 핵심산업이다. 활동할 무대가 글로벌 시장이 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폐배터리 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 : 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기획(안)

1 | 토론회 개요

- (주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 :
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 육성방안
- (일시) 2023. 2. 23.(목) 오전 10시
- (장소) 제9간담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2 | 프로그램 (90분)

*사회: 홍성국 국회의원

시간	내용
10:00-10:01	개회 선언
10:01-10:02	국민의례 (애국가 등 생략)
10:02-10:05	참석자 소개
10:05-10:10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인사말
발제 10:10-10:30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시장 현황 및 산업 육성 최용철 교수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토론1 10:30-10:40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이기현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토론2 10:40-10:50	폐배터리 산업, 시장전망과 전략과제 박재범 수석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토론3 10:50-11:0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 정책방향 김경미 서기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토론4 11:00-11:10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 현황 및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황재곤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토론5 11:10-11:20	전기차 투자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정책 과제 김주홍 수석본부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11:20-11:3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